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연준, 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추나...0.25% 포인트 인상 유력
- Bloomberg: 미국 기업의 약 20%, 인력 감축 예상

#### [미국 금융]

- Bloomberg: 뉴욕시와 골드만 삭스, 중소기업 돕기 위해 손잡는다
- CNBC: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애플페이에 맞설 디지털 결제 내놓는다

#### [글로벌 경제]

- CNN Business: 친환경 보조금부터 반도체 칩까지, 불안정한 국제 경제 속 Davos

#### [IRA]

- Bloomberg: 애매모호한 급여 및 채용규정... 기후법안의 세금 공제만 더 복잡해져

#### [오일/에너지]

- WSJ: 해양 석유 사업 다시 급성장...에너지 수요 급증 탓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자동차 시장 뒤쫓는 테슬라... 가격 인하에 경쟁업체 부담 커져
- WSJ: 애플이 지금까지 감원 피한 비결: 적은 고용 및 제한된 직장 내 혜택
- Bloomberg 오피니언: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미국 경제]

#### WSJ: Fed Sets Course for Milder Interest-Rate Rise in February

#### 연준, 2월 금리 인상 속도 늦추나...0.25% 포인트 인상 유력

-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오는 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늦추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0.25% 포인트 인상이 유력하다.
-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4차례 연속 0.75% 포인트를 인상했고, 지난 12월에는 0.5% 인상하며 속도를 늦추고 금리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줄 시간을 재고 있다. 대부분의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12월까지 금리가 5~5.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 한편 오랫동안 지속된 공급망 혼란이 완화되고 연료 가격, 중고차, 주택 가격 냉각 등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를 두고는 여전히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 WSJ 기사

**Bloomberg: Nearly 20% of US Firms Expect to Reduce Headcount, Survey Shows****미국 기업의 약 20%, 인력 감축 예상**

- 많은 기업들이 급여 감축을 이익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 현재 미국 기업의 약 1/3이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 미국 경제 협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내 회사의 인력 감소 폭이 고용 폭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높아진 금리의 영향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함에 따라 더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수반된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NYC, Goldman Sachs Launch Effort to Give Struggling Small Businesses a Lift****뉴욕시와 골드만 삭스, 중소기업 돕기 위해 손잡는다**

- Eric Adams 뉴욕 시장은 월요일(23일)에 골드만 삭스 그룹과 마스터 카드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민관 대출 펀드이다.
- 7천5백만 달러 규모의 뉴욕시 소상공인 기금은 대출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보다 낮은 4%의 고정 금리로 2천달러에서 25만 달러 범위의 대출을 제공한다.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도 고군분투 중인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Eric Adams는 덧붙였다.
- 코로나 대유행일 때 문을 닫은 개인 사업체는 4천개 이상이었다고 뉴욕시 감사관실이 언급하면서 약 1천5백개의 사업자들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Bloomberg 기사

**CNBC: Bank of America, JPMorgan and other banks reportedly team up on digital wallet to rival Apple Pay****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애플페이에 맞설 디지털 결제 내놓는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 웰스파고 등의 주요 은행들이 합작해 애플페이와 페이팔에 대항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시스템은 현재 Zelle을 운영하고 있는 Early Warning Services를 중심으로 주요 은행들의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 연결되는 digital wallet 형태가 될 예정이다.
- 하지만 분석가들은 새 digital wallet이 기존 디지털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페이팔과 애플페이를 위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더 나은 고객 경험, 설득력 있는 가치를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 기사

### [글로벌 경제]

#### **CNN Business: From green subsidies to chips, Davos debates reflect a world in flux**

#### **친환경 보조금부터 반도체 칩까지, 불안정한 국제 경제 속 Davos**

- **스위스 Davos에서 열린 2023년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반도체 공급 확보 및 생산 현지화에 대한 각국 정/재계 지도자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RA를 둘러싼 유럽과 한국 등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 **중국에 대한 입장 차이:** 미국이 향후 군사 무기와 인공지능을 강화할 첨단 제품을 중국이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반도체 기술 통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유럽은 안보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경제'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직접적인 '편'을 들지 않고 있다.
- **'덜 효율적인 세상'이 온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기업 CEO들은 가능한 한 짧은 공급망과 동맹국으로부터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품을 그저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자 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을 뒤집고, 인도와 같은 나라들이 새롭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 [IRA]

#### **Bloomberg: Fine Print on Labor in US Climate Bill Complicates Rush for Tax Credits**

#### **애매모호한 급여 및 채용규정... 기후법안의 세금 공제만 더 복잡해져**

- 미국의 IRA 기후법안으로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수천억 달러 규모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가운데 충족해야 하는 필요조건들이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

- 태양광 사업으로 투자세액공제 30% 전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미 연방 노동부가 정한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견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최소 노동분담금 또한 사용해야 한다. 그 외 풍력, 수소, 원자력 등에도 포함되며 이달 말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 해당 업계는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임금과 고용 문턱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태양에너지산업협회 회장 Abigail Ross Hopper는 산업계가 연방 정부의 더 많은 지침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데다가 충분한 견습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1월 29일부터 "인증된 견습인력"(Qualified Apprentices)이 차지하는 노동 시간이 전체 프로젝트의 12.5%에서 15%로 높아져야 세금 공제의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고 Blue Green Alliance의 전무이사 Jason Walsh가 언급했다.
- 바이든 행정부도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근로자 가족이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개발자들은 제한된 수의 견습인력과 그 외 비현실적인 규칙에 주저하고 있는 것.
- American Council on Renewable Energy의 부회장인 Allison Nyholm도 "필요한 곳에 해당 요건들에 속하는 노동자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것이며 프로젝트 구축하기 위한 인력의 필요성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오일/에너지]

#### **WSJ: The Offshore Oil Business Is Gushing Again** 해양 석유 사업 다시 급성장...에너지 수요 급증 탓

-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급증,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 높은 원유 가격에 힘입어 수년간 방치되었던 굴착기들의 해상 석유 탐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 2022년 12월 해양 석유 시추가 가능한 전 세계의 약 6백대 굴착기 중 90%가 작업 중이거나 계약 중이었다. 5년 전의 63%에서 늘어난 것이다. Transocean Ltd., Valaris Ltd. and Noble Corp. 등 시추선을 소유한 기업들이 시추선 임대료 상승의 수혜자가 되었으며, 이 선박들은 남미와 중동 연안으로 몰려들고 있다.
- 하지만 해상 석유 시추는 육지에서의 프로젝트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폭발로 인한 기름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 현재 화석연료로부터의 전 세계적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석유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급감하게 될 수도 있어 업계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WSJ: Tesla's Price Cuts Are Roiling the Car Market****자동차 시장 뒤흔드는 테슬라... 가격 인하에 경쟁업체 부담 커져**

- 테슬라가 최근 미국 내 인기 모델들의 가격을 내려 자동차 사업과 구매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달 초 가장 많이 팔린 모델 Y의 일부 버전은 20%나 떨어졌다. (시작 가격은 약 6만6천달러에서 현재 약 5만3천달러)
- 투자자들과 월가 분석가들은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약해진 수요를 회복하는 데 있거나 이익 마진을 희생해서라도 경쟁업체를 압박하는 것, 또는 7천5백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자격을 맞추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
- 전기차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할인에 경쟁업체의 어려움과 할인 전 테슬라 구매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 WSJ 기사

**WSJ: How Apple Has So Far Avoided Layoffs: Lean Hiring, No Free Lunches****애플이 지금까지 감원 피한 비결: 적은 고용 및 제한된 직장 내 혜택**

- 애플 또한 3년여 만에 분기별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분야에서는 채용을 늦추고 있다.
- 그러나 애플 제조사의 노동력은 지난 3년간 20%만 성장하였는데 이는 경쟁사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
-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애플의 인력은 약 20% 증가하여 약 164,000명이 정규직 직원이 되었으나 같은 기간 아마존의 직원 수는 100%, 약 두배 증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 수는 53% 증가, 메타의 직원 수는 94% 증가했다.
- 애플은 실리콘 벨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삭감이나 특전에 대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다른 테크 회사들과 달리 회사 캠퍼스의 직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지 않음

## WSJ 기사

## Bloomberg 오피니언: AI Is Improving Faster Than Most Humans Realize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by Tyler Cowen

- 자연스러운 채팅이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인 ChatGPT와 같은 기술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가 없는 시점이다.
-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것인데, 2017년 말에 설립된 DeepMind의 AlphaZero라는 프로젝트는 수억 개의 체스 게임을 약 4시간 동안 돌리더니 최고 수준의 체스 플레이어 실력을 보였다.
- 이미 유명해진 ChatGPT의 일화로는 작년 말에 경제학 시험에서 D등급의 답변을 내놓았는데 올해는 대학원 수준의 법, 경제 시험을 명확한 답변으로 합격을 했다.
- 이러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향후 수행 가능할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코드를 쓰는 것과 교육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인 사람이 기술 발전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일 것이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